ISM Church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 4:13)

•교회선교목표

1. 각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 이민자들에게 복음의 접점을 만들어 신앙 시작의 끈을 만들고 복음을 나눈다.
2. 중국 신장성의 위그르족의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센터 설립.

■ 선교대상

한국과 미국에 있는 각국 유학생 또는 이민자들 & 중국신장성 위그르족

■ 선교방법

1.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지원과 정보(이민법률, 차량라이딩, 숙박정보, 일자리)등 정착에 도움을 주며 SNS(Wechat, Face book, Instagram, 인터넷 카페) 활용을 통해 교제의 접점을 만든다.

2. -매주 주일 예배모임과 센터 미팅 교제를 통한 직접선교
   -파티 형식식사제공 (젊은 층에 맞춰, 피자, 치킨,라면, 샐러드등)
   -과제물도움, 논문교정, 법률도움, 아르바이트,각종생활정보제공
   -기독영화 상영과 상영 후 퀴즈를 통한 상품(생필품)전달
   -이벤트성 행사 (의료상담, 취미강좌, 기독테마여행등)
   -취미소그룹 모임을 통해 신앙 성장을 도모

3. 중국우루무치시에 언어교육 비지니스 설립과 교육을 통한 위그르족 선교.

■ 양육방법

복음이 들어간 각 나라유학생 리더를 양육하여, 그들로 하여금 CMB 선교사로 양육
양육리더에게 일임 (1:1양육)

■ 교회조직

1. Online 선교사 (SNS홍보)
2. Offline 선교사(선교 이벤트기획 및 진행)
3. 평일 상담자 (로테이션형식)
4. 토요일미팅파티 진행간사, 양육간사
5. 주일예배 찬양인도자, 설교자, 양육간사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12 21센츄리시티빌딩 1233호 48508
www.ismchurch.org 070-7092-9716,/010-6398-2010

ISM Church

ISM 교회

July 19, 2026

유학생선교교회 찬양과 경배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Sunday Praise and worship

● 매주 일요일 I Every Sunday
AM 11:00 KOR I PM 10:00 US I Live Worship
Kor:82) 010 6398 2010 I U.S :1) 551 404 0738
youtube@ISMChurch I www.ismchurch.org
Pastor. Ho Soub Jang I 목사 장호섭

ISM Church
International Student Mission Churc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필립 4:13)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11:00 AM

1. 찬양과 기도 Praise & Prayer	기도와 찬양의 시간	모두함께
2. 오늘의 성경말씀 Scripture of the Day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시니라."* (사무엘상 16:13)	모두함께
3. 성경 묵상나눔 1 Bible Share	성경나눔	장호섭
4. 삶속 묵상나눔 2 Bible Share	형제, 자매들의 묵상 나눔과 기도 나눔	모두함께
5. 기도와 찬양 Pray & Praise	말씀관련 찬양 & 기도	모두함께
6. 교회소식 Announcements	교회공지 및 행사	장성
7. 마침기도 Closing Prayer	성경 나눔 요약 및 마침 기도	장호섭

8.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 나눔 요약 (2026 July. 19 주일 찬양과 경배)



Pastor HS Jang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하시니라." (사무엘상 16:13)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대개 순탄한 삶을 떠올립니다. 좋은 직장을 얻고, 사업이 잘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모든 일이 막힘없이 풀리는 삶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고, 어린 목동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기름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오히려 더 험해졌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광야를 떠돌았고, 왕궁 대신 동굴에서 밤을 지새웠으며,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보다 사울 왕의 창끝을 피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입니다.**

1.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관도 없었습니다. 왕궁도 없었습니다. 보좌도 없었습니다. 다시 양 떼를 치러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주어졌지만 현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광야는 버려진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듬으시는 작업실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동굴에서는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웠으며, 배신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3-4**

2. 다윗은 가장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어느 날,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둡고 차가운 동굴에서 미래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편 23:4**
다윗은 "골짜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골짜기를 만납니다. 질병이라는 골짜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골짜기, 가족의 아픔이라는 골짜기,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는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골짜기 안으로 함께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3. 다윗의 가장 큰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죄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넘어졌습니다. 밧세바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잘못 사용했고, 죄를 감추려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체면을 지키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졌을 때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4. 다윗의 인생 마지막 고백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윗은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좌도, 전쟁의 승리도, 배신도,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도, 눈물도 모두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 이 말은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왕관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왕좌가 자신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의 믿음은 환경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축복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다 잃는다 해도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니었습니다. 왕관도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 다시 무릎 꿇었던 그 마음이 다윗을 다윗 되게 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광야를 걷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름부음 다음에 광야가 있었다면, 광야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광야를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준비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광야도 길이 되고, 눈물도 기도가 되며, 상처도 간증이 됩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tube@ISMChurch